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총회 **총현교회** 사회복합체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갈보리 십자가!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 (2일)부터

금요일 (6일)까지

성금요일 (6일)
전교인 1일 금식 및
제3차 성찬식 (금요찬양집회 시)

예루살렘에 임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은 기뻐 찬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요 12:13) 예수님의 마음은 갈보리에 있었지만 군중들의 마음은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결국 군중들은 돌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요 19:6)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흠여졌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보리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 13:12)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멈출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동참해야 합니다. (골 1:24)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진행될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새벽 4:50 시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십시오. 특히 성금요일에는 하루 금식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금요찬양집회시에 있을 제3차 성찬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날 금요찬양집회 시에는 그 동안 연수하였던 <생명의 양식>(주기도)(거룩한 성)을 찬양하오니 찬양의 입술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딤후 1:15)라는 고백이 나오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보혈의 흔적을 따라 갯세마네와 갈보리까지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중려주일(2·3부 예배는 가족연합예배, 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 예배)
*다음 주일(8일), 부활주일특별 찬양은 찬양예배 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예수의 일꾼 피택 결정!

지난 주일(3월 25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20대 장로 13명, 40대 안수집사 36명과 당회에 임할하였던 48대 권사 68명이 피택되었습니다. 공동의회로 다시 모여 개회 결과를 알리자 하지만 <주간총현>을 통해서 이를 대신함을 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택받은 일꾼들은 오늘부터 6개월간 예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딤후 4:6) 피택을 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 합니다. 이분들의 입술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딤후 1:15)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행 3:7)

*피택자 명단은 본지 6·7면을 참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찬양집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착념하라고 권면한다. (딤후 4:13) 혹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싫어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요 17:14 ; 벧전 1:23-25) "권하는 것"(Exhortation)의 의미는 '권고, 격려, 권면하다'이다. 이 권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권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단순히 등을 두드리며 '잘한다'라고 격려하는 것 이상으로 곁에 서서 항상 도와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져 보자. 아직도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다른 자들을 도와 "소금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키게 하기 위해 그들을 돕는 것을 말한다. 말씀을 읽고 권하며 가르쳐야 할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은 사도들이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여 주는 것이다. 히브리어 10장은 집도 물도 가족도 분리되어 버린 형편에 처해 사방없는 자들이 중심으로 팔러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위해 쓰여졌다. (히 10:24, 25)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던 자들이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들도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우리들은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재충전 되어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렇지 못하다 해도 적어도 도전을 받고 나서게 된다.

삼손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참 부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상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산 8:10) 그러나 곧이어 신명기 8:11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위하여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산 8:12~14, 17, 18) 부요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요함은 큰 시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富)를 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 이 부(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우자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땅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농동자같이 지켰다. (신 32:10~12) 예수군이 살찌게 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우습게 여긴 것이 이스라엘의 과거 신앙의 역사이다. (신 32:15)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으나 그들이 부요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잊었고 말씀하신다. (호 13:4-6) 이렇게 차가워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뿐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을 섬긴 죄가 있다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우리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것이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대상 17:13) 저들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셨다. 그러나 사울왕에게서는 왕국을 빼앗으셨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다윗의 죄악이 사울의 불순종보다 더 악하게 보인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였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과 그 자손들로부터는 약속과 왕국도 빼앗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왕과 사울왕의 마음에 있다. 사울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는 오직 자신의 명예만을 염려했을 뿐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 (삼상 15:24~26, 30)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죄악이 밝혀졌을 때 자신의 재판을 지지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믿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셨다. (삼하 12:13)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한다. (요일 1:9)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지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질 때에 이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도전을 사랑으로 방황을 바꾸어 주신다.

역대사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부유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다. (대상 29:2-5) 그 가치는 지금의 돈으로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십일조를 바쳤고 그 외에도 감사물을 바쳤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함으로 인한 죄는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풍요로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 그 부요함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대상 29:17a)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이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대상 29:17b) 아멘.

FROM THE GRAVE TO THE RESURRECTION

(1)But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t early dawn, they came to the tomb bringing the spices which they had prepared. (2)And they found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tomb, ... (11)But these words appeared to them as nonsense, and they would not believe them. (12)But Peter got up and ran to the tomb; stooping and looking in, he saw the linen wrappings only; and he went away to his home, marveling at what had happened. (Luke 24:1-12)

Everyone knows, whether they are believers or non-believers, that Jesus Christ's death by cross sentence took place in Pontius Pilate's court. He was the judge and the high priests, Pharisees, and scribes were the plaintiff's. Their witnesses were the crowds of Jerusalem and their enforcers were the Roman soldiers. All together these people worked diligently to persecute, prosecute, and crucify Jesus Christ. Religious, political, and cultural powers joined hands to condemn the cleanest man that ever walked the face of this earth. After Jesus' death, Joseph from Arimathea (a rich man who became a disciple of Jesus) asked Pilate for Jesus' body and buried Him in his own new tomb. The very next day, the religious officials asked Pilate to have the tomb guarded because they remembered that Jesus said He would rise again after three days.(Mt. 27:62-64) They were worried about His resurrection. As a believer, when you carefully review the affairs of the cross you see the absurdity. Non believers were concerned about Jesus' resurrection, while believers were concerned about His death. The women who were with Him at the cross, those who dearly loved Him, came to His tomb with spices and oil to care for His dead body. The religious officials, who hated Him dearly, wanted His tomb guarded so that they could kill His risen body. God handled the affairs of Jesus' body! When the women came to the tomb that had been covered with a large stone and guarded by two Roman soldiers, the stone was already rolled away and the soldiers laid like dead men in shock. God's angels told them, "He is not here, but He has risen. Remember how He spoke to you while He was still in Galilee, saying that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the third day rise again."(vv. 6&7)

The women remembered! They brought to mind the words of Jesus, "And they remembered His words." (v. 8) Real believers' souls come alive at the Word of God. These women were believers, but the angels had to ask them, "Why do you seek the living One among the dead?"(v. 5) Their question is the same question for you on this Easter day, "Why do you seek the living One among the dead"? Are you truly practicing your faith in Jesus Christ? If so, then why all the stress in your life? Perhaps your faith is really in money or the happiness of your children or your own self comfort. If you really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the One who spoke the world into existence, the One who is everything, then where is His peace in your life? Why do you keep seeking after dead things and not the living One? You cannot find your Savior in a cemetery, nor can you find Him in your heart, for if Jesus is not in your heart then your heart is a cemetery. He is alive. He lives. He is risen. He told John,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and the living One; and I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evermore, and I have the keys of death and of Hades."(Rev. 1:17&18) Do you remember? Do you believe it? If you continue to look for earthly things, like money and popularity, then Jesus is still dead to you. Do you remember the great injunction? You are a sinner in trouble, and only the Word of God, Jesus Christ, can save you. Matthew 12:40 says, "for just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 in the belly of the sea monster, so wi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Jesus suffered death so that you could enjoy eternal life. He told His disciples, "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to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to mock and scourge and crucify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up."(Mt. 20:18&19) Do you remember? Do His words hold true in your heart, or do you need more bread and water? Do you remember how He first spoke to you of your salvation? I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could happen to you, but you forget and get involved with stupid earthly things.

The women returned from the tomb to tell others the good news.(v. 9) If you really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return. If not, then you will end up going your own way. Your attitude will not change, and the good news that touched you will slowly wither away. If these women did not believe in Jesus, then they would have started questioning what they actually saw, reasoning away the truth. Perhaps they were overly tired and just seeing things. These women returned with a different attitude. They really loved Jesus and saw Him and the Word of God was alive in their hearts when they returned. When they first arrived at the tomb, they were sad, discouraged, doubtful, mourning, and every step was sad because they thought Jesus was dead. When they left the tomb, they were happy, excited, encouraged, and every step was quick and light because they knew Jesus was alive. Do you really know that Jesus lives? How come you are not excited? What is in your heart, what is really bothering you? You need to remember and return to Him.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made these women new creature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 Cor. 5:17) Are you a new creature? Have you returned to share the good news with others?

The women reported all these things to the eleven disciples and to all the rest.(v. 9) Imagine the excitement. They went to anoint a dead body but returned as eye witnesses to Jesus' resurrection. They went as morticians but returned as missionaries. Their hearts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ir words were a true sermon. They announced the gospel, which is that the Son of God is alive. They had the greatest message in the world to deliver. They went to Peter, the backslider, and John, the heartbroken, and Thomas, the doubter, and told them that the risen Christ would meet their need right now, and to please come to Him. At first, their words appeared to them as nonsense, and they would not believe them, "But Peter got up and ran to the tomb; stooping and looking in, he saw the linen wrappings only; and he went away to his home, marveling at what had happened."(vv. 11&12)

You need the risen Christ. His resurrection is a heavenly blessing. Please do not think about the grave for truly it is empty. Jesus Christ has risen. He is your God. He is your Lord. He is sitting right now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to intercede for you and me. Walk away from the grave and step into the wonderful light of resurrection. Amen. 🙏

죽음에서 부활까지

⁽¹⁾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²⁾둘이 무덤에서 굴러 올기운 것을 보고...⁽³⁾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뵈어 믿지 아니하나

⁽⁴⁾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4:1~12)



김성관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 사형 선고가 본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려졌다
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본디로 빌라도는 재판관이었고, 고소인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
다. 증인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이었으며, 집행자는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바쁘게 움직
였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인 힘이, 이 땅을 밟고 지나간 자 중에 전혀 흠
없는 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그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자
신의 새 무덤에 모셔두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삼 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
가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 27:62~64)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
날까봐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순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
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믿는 자들은 그 죽음에 관심
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조차도 그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
습니다. 반면 주님을 끔찍히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
을 믿고 두려워하여 그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둘러
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여인들이, 큰 돌로 막아놓은 채 두 명의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돌은 이미 저만치 굴러가 있었고
너무 놀란 군인들은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 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눅 24:6,7).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침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
고"(8절) 참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이 여인들은 믿
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들은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5절) 이것은 오늘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질문입니다. "왜 여러분
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 널리 있는 많은 스
트레스는 어찌된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정 돈나나 자녀들이 행복
해지길 바라는 것이냐 또는 자신이 편안함을 누리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삶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아
직도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 없어질 것만 찾고 있는 것입니까?
무덤 속에서 있는 여러분의 구세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은 이
미 무덤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
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나"(계 1:17,18)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만약
아직도 돈나나 명예 같은 세상 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
수님은 죽은 자입니다.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
습니다. 마태복음 12:40은 말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
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
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

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
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마 20:18,19) 기억하십
니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
면 아직도 더 많은 떡과 물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을 망각하고 하찮은 세상 일에 매여 허송 세일을 보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9절) 예
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변하
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복음도 점차 시들해져버릴 것입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본 것을 의심하면서 부활의 진
리를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 지체 있었기 때문에 헛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갔
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처음 무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슬픔과 실망,
의심에 싸여 죽은 자를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슬픔 때문에 몸조자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떠날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
게 된 기쁨으로 흥분한 그들은 용기백배해서 걸음마져 날아갈 듯 가볍고 빨라져 있
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전처럼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무
엇이 여러분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야만 합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여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
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향
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고하니

여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9절)
열하나 흥분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신시에 기쁨을 바르려 갔었지
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장례를 치르려 갔다가 전
도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들의 말은 진실한
설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다는 소식
을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
던 베드로와 비탄에 잠긴 요한,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을 만나려 갈 것이고 무덤으로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는 그들도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11절) 그러나 "베
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
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12절)

여러분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늘의 축복입니
다. 더 이상 죽음의 무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이미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
러분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시며 여러분과 저를 위
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극 죽음의 무덤에서 벗어나 경이로운 부활의 빛 가운
데로 걸어들어 가십시오.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3.28.)

죄인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7:46)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십자가! 2000년 전 성탄 밤의 예수님은 고난의 끝 자락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 육신에 밀려오는 고난으로 숨 쉬기조차 힘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눅 23:34)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으며 육신적·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안타까워하셨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었던 옆에 매달린 강도의 구원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여자를 보소서 아들이나이다"(요 19:26)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이 외마디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극형이었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죄인들의 어둠 속에 계신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어둠 속에 계셨다. "제 육 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음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리니"(마 27:4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 얼마 뒤 한낮이었음에도 온 땅이 어두워졌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어둠 속에 계셨다. 공포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어둠 속에 예수님은 계셨다.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를 대신하여 어둠 속에 계셨던 것이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어둠에 한다. 자신의 힘과 공로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교만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는 자존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다.(롬 1:21)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감동을 입자.(롬 13:1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음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엡 6:12) "나"를 앞세울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엡 5:5)을 얻을 수 없다. 오로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빈곤해질 것이다. 아무리 울며불며 철저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마 8:12) 그러므로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자.(요 8:12) "주 예수 나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찬 208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후 5:17) 우리는 죄인을 대신하여 이미 어둠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골 1:13,14)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고 빛에 거할 수 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 계셨다.

불확실 속에 계신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불확실 속에 계셨다. 원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확실한 삶의 삶이었다. 평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다. 죽은 지 삼 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불확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최고로 확실하신 예수님께서 불확실에 처하셨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같아지는 것을 늘 속삭내는 요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악하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사 57:20,21)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불확실한 있을 뿐이다. 이같은 불확실 속에 예수님이 처한 것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확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불확실 속에 계셨다.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예수님의 고통을 아나기 무용하신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의 죄, 우리의 아들, 우리의 불확실성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었다. 이사가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생히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 오히려 배척한 것은 사실이었다.(사 53:1,2) 오�히려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으로 만들었다.(사 53:3)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계산법(The Divine Account)이었다.(사 53:5) 결국 조롱과 모욕 속에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다.(사 53:6-12)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같은 수난이 있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죄는 심각하다. 영원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롬 6:23) 이처럼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존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십자가를 경멸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악한 모습을 회개하자. 무의식중에서도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려 했던 교만을 진심으로 회개

하고 십자가만을 붙들자.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찬 496장)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겠느니라"(히 13:5)

이 땅에서의 약간의 편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말자.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지 말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자. 유일한 우리의 간증과 찬송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한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모든 어둠과 불확실은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은 보혈로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절대로 우리와 분리되지 않으실 것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단 근심 있로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점을 풀었네."(찬 455장)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결코 어둠, 불확실, 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총이다! 이 은총으로 가득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자.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십자가 안에 빠뜨리고 주께로 옵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영광의 주를 뵈오려고 주께로 옵니다."(찬 330장)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YES"

새가족 양육부에서 양육받던 지난 해, 처음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의 자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교회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던 나는 총현교회의 성도라면 당연히 새벽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줄 알고 나갔다. 이처럼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나를 위해 예비해두신 주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웠다.

진신교회 2층 장의실에서 늘 정신병원에 계셨기에 얼굴도 몇 번 빈 적이 없는 삼촌과 일 년에 기적해야 한두 번 씩은 할머니를 떠올려주시며 눈물로 기도해 하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의 치유는 물론 영혼까지 구원해주시다는 확신을 주시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복음이 무엇인지, 대체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던 나는 그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시골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다. 할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암송의 문이 관함이었지만 내가 교회 간다. 어디 그뿐이라, 죽을 때도 자식들 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죽지!"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작년 사순절기가 끝난 후에도 너무나도 게으르고 불성실한 나를 계속해서 새벽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삼촌과 할머니를 비롯해 내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맞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받은 베풀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할머니께 전했더니 "신경아, 네 기도를 너희 하나님께 들으셨나 보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시다. 의사들과 가족들 모두 고지라고 자신까지도 포기했던 삼촌의 병이 거짓말처럼 다 나아서 취직도 하여 삼촌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신다는 거였다. 더욱 감사한 일은 "어릴 적 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서 삼촌을 교회로 인도해주세요"라고 했던 내 기도대로 삼촌에게 교회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 허락해주시고 불신자이신 할머니를 삼촌이 오히려 전도하셨다는 것이다. 몸 시도 기쁜 나머지 한 걸음에 달려가 할머니께 성경책과 찬송가 테이프를 선물해 드리며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했다.

정말이기에 주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된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적과 같이 이루어가시는데, 어찌 내가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리셨는지 그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가시 면류관 쓰시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 다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탄 편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주님께서 예비해두신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때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다.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끝나면 그 날까지 주님의 성결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식사를 준비하며 드리는 찬양

매에배 시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구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을 듣다 보니 어느덧 바뀌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감사, 감사뿐입니다. 사실 짧은 날 저는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할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와 남편, 자녀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처럼 외식적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치 않는 사람으로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칠십이 넘어 은퇴한 뒤에도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소망부 찬양대원과 예루살렘 찬양대원으로서 한 주간에 3.4곡을 외우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찬송할 곡을 복사하여 냉고에 넣어놓고 식사 준비를 하며 찬송을 하는 동안에 저의 마음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 됩니다.

종이 멀리 있는 분들도 부지런히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골고리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예루살렘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시고 금요찬양집회를 통하여 온 교회와 나 자신에게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구주"가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기도를 찬송하리이다."

한영숙(은퇴권사, 예루살렘 찬양대원)

아! 정말이네!

저는 믿는 집안으로 시집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구역에 배도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은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은혜받으며 다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미지근한 상태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성경공부도 해 보고 성경통신을 통해 성경도 읽고 나뭇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위로상을 받기 위한 행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이 마음에 감동으로 외닿았습니다. "그렇구나! 아! 정말이네!" 한마디로 말해 저는 전혀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저의 약한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과 나에게서는 믿음만이 요구된다는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말씀을 볼수록 목상하며 기도하던 중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무엇인가 하나를 했다면 그것은 결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께서하신 것이지!'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음성에 처음 접한 저는 놀랐지만 이윽고 제 안에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꼭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안선희(집사, 8교구)

선교소림문

무참히 깨지며 받은 은혜

이번 사역은 나에게서 일곱번째 선교이자 같은 지역으로 가는 두번째 선교였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의 선교 노후가 먼저 나왔고, 주님보다 나의 경험적인 생각들을 앞세우게 되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경험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다.

이번 사역에서 나의 경험과 생각들은 정말 무참히 깨어졌다. 주님께서는 나의 경험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아시고 지난 사역과는 아주 다른 선교를 펼치셨다. 지난 번 선교 때는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번 사역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화를 내시며 아이들을 데려 갔었다. 첫째날 둘째날은 이런 상황이 마음 이 너무나 안타까워 정말 화가 났다. 그러나 속소에 돌아와 사역 평가회를 한 뒤, 잠들기 전에 말씀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불행히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리라"(계 3:20)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난 항상 너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역 중에 공안을 받았을 때 예전 같으면 정말 두렵고 떨렸을 텐데 우리 팀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떨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난 공안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자기부인이 정말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말로만 자기부인을 하고 있었지 내 삶 가운데는 정말 자기부인이 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부인은 내 삶에서 솟아나는 완전 자기부인인데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자아와 자존심이 자기부인을 하지 못하게 내 자아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역을 하면서 자기부인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야말로 회개하는 사역이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도움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지구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였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만이 진정한 자기부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권지현(대학부 6팀)

<생명의 양식>을 찬양하며

(C. Franck 작곡)

<생명의 양식>의 전주가 나올 때, 예배당 가득히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낀다. 아니 연습을 할 때부터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이미 나의 심장을 만지고 계셨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맡아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라고 찬양을 하면 더 이상 내 안에 남지는 은혜를 주해주시지 못하고 자연스레 찬양의 생수가 터져, 나 뿐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온 예배당들 가득 채운다.

"낮고 천한 우리 공출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찬양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그네 이 부끄럽지 않으며 오렐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영원한 기쁨으로 참 자유를 누리다. 비교적 많이 알려진 곡이고 이전에 많이 들었던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더욱 나를 부인하게 된다. 내가 음울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죄인을 공출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움직이는 듯하다.

이윽고 죄로 찌들어 있던 세상의 뜻을 벗기며 주님이 나에게 보혈로 가득한 새 옷을 입혀 주신다. 이 은혜를 어찌 다 말할 표현할 수 있나!

"주님이 해방시켜 먹을 때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간주에 이어지는 솔로와 합창의 호소하는 더욱더 나를 은혜의 바다에 젖어둘게 한다. 특히 온 성도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분하심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천국의 모습, 그 자체이다. "낮고 천한 우리 공출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십자가를 통한 공출함이 나를 살릴 수 있기에 나의 찬양은 입술에 머물지 않고 배틀레함의 말기유와 갯세마네 그리고 골고다에서의 예수님을 향해 있다. 낮고 천한 죄인들에게 배부심 예수님의 은혜와 공출하심에 멈출 수 없는 눈물로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한다.

김소연(집사, 찬양위원회)

이번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수) ~ 6월 25일(월)	정영미 · 전예진(해마다)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8일(수) ~ 4월 5일(목)	13교구 1팀	정철규

제48대 권사 피택자 명단



강 옥 희



구 명 속



권 영 심



김 광 혜



김 두 soon



김 순 이



김 연 향



김 영 실



김 영 은



김 월 자



김 점 례



김 정 속



김 정 화



김 지 현



김 학 선



김 희 미



김 희 선



남 영 soon



노 명 soon



마 현 미



문 현 옥



민 정 soon



박 명 란



박 복 속



박 정 인



배 명 soon



백 난 희



백 애 soon



백 정 속



서 덕 soon



손 영 속



송 정 soon



안 증 남



오 준 분



윤 속 상



이 강 해



이 명 gum



이 명 soon



이 명 옥



이 명 재



이 명 희



이 순 기



이 봉 선



이 연 속



이 연 화



이 영 soon



이 인 속



임 명 희



임 복 례

2007년 피택자 명단



임 장 순



임 태 수



임 현 숙



임 홍 숙



장 선 복



장 혜 남



장 화 숙



전 숙 영



전 은 실



정 신 숙



정 옥 려



조 인 숙



지 아 연



채 혜 혜



최 숙 자



최 영 옥



최 옥 숙



함 명 연



홍 명 희

(가나다순)

제40대 장로 피택자(나이순)

이름	교적번호	교구	이름	교적번호	교구
김철환	319	11	이성섭	2396	12
이인관	4696	7	장철규	83-274	13
김연태	89-87	9	이보신	88-53	1
김종홍	79-435	8	이상해	86-449	2
장철환	89-928	4	김성호	84-230	3
정태동	95-594	5	조증민	86-383	7
이세영	1310	6			

*피택자는 (장로 피택자는 부부동반) 오늘 찬양예배 후(오후 6:10)

배다니 홀에서 피택자 교육 개강예배를 드리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 가 족 을 환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19	다와도르치	19	외선부	석귀수(13)	539	김 병	19	중동3부	
520	디프	19	외선부	박모세(19)	540	장 욱	19	고동부	최명희(2)
521	트롬	19	외선부	박모세(19)	541	장재형	19	중동2부	최명희(2)
522	레반동	19	외선부	김자선(7)	542	노병관	2	장년2부	조영철(10)
523	하	19	외선부	김석영(7)	543	송준익	2	장년1부	이원진(10)
524	조남영	17	장년1부	이재배(1)	544	노연아	2	장년1부	이창호(10)
525	이진아	19	장년1부	지영준(17)	545	구미나	15	장년1부	이영미(18)
526	김기봉	19	장년1부	오명준(10)	546	장경희	14	장년2부	박종필(14)
527	이준원	19	장년1부	정순옥(16)	547	한기덕	14	장년1부	박종필(14)
528	이항일	19	장년1부	조홍연(2)	548	장지훈	19	대학부	이우미(6)
529	한광영	19	장년1부		549	이중서	12	장년1부	고숙자(12)
530	최형규	7	장년1부	김용배(10)	550	김영찬	14	장년1부	조혜경(17)
531	김태호	19	고동부	김영희(12)	551	오정환	5	소망부	최경하(12)
532	오진영	19	장년1부	황간하(9)	552	이원동	19	장년1부	박문신(17)
533	장길성	19	장년1부	박호지(2)	553	김인환	19	장년1부	김성우(4)
534	김숙자	8	장년1부	박귀자(9)	554	최혜정	10	대학부	장세복(10)
535	김종배	9	소망부	남현숙(9)	555	김진희	19	대학부	하정수(8)
536	채순신	14	소망부	장현순(14)	556	박우룡	19	중동2부	정정희(3)
537	김택수	8	소망부		557	강종호	1	장년2부	권정자(2)
538	신은주	1	장년1부	김순자(3)	558	김수환	19	장년1부	안지영(4)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20대 안수집사 피택자(나이순)

이름	교적번호	교구	이름	교적번호	교구
김 관	79-230	2	노수식	92-1245	3
안병택	94-1111	11	김일생	90-970	14
정달영	79-443	16	정중현	94-1359	17
성대열	95-246	16	김건석	91-224	1
김영춘	82-134	12	최동삼	87-256	7
김영연	82-290	3	김 근	93-1302	7
배관용	4470	13	송영삼	87-742	6
김현근	82-69	6	이상배	91-179	2
김재운	79-345	18	여영호	89-690	18
곽상조	93-651	7	선명환	91-529	4
조성수	80-747	5	유승렬	83-421	15
오동혁	93-1188	2	정인욱	98-757	1
송문식	92-632	8	남종호	91-476	12
이영식	85-931	13	김영모	96-208	5
김동휘	83-112	9	박성곤	97-281	10
함경무	86-635	15	박노익	96-303	17
변인식	84-1231	6	김봉화	95-607	11
안연식	91-944	4	류태준	92-247	12

교역자 동정

나광영 목사님(17교구, 2001년 5월~2007년 3월)과 고광환 목사님(18교구, 2001년 7월~2007년 3월)께서 다른 사역지로 가시기 위해 사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들의 앞길에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12지회 월례회
일시: 4월(수) 1부 매월 후
정소: 갈릴리움

발세

1. 김재수 씨(김영숙 집사의 부친, 4교구 방배1구역) / 3월 22일 밤세, 27일 장례
2. 최영준 씨(김은자 집사의 모친, 원성원 성도의 장모, 1교구 역삼(남구역) / 3월 25일 밤세, 25일 장례
3. 신갑범 은혁원사(송영숙 집사의 모친, 유근식 집사의 장모, 14교구 신길구역) / 3월 25일 밤세, 27일 장례
4. 김보배 타교집사(이석준 성도의 모친, 조은형 집사의 시모, 16교구 평촌3구역) / 3월 25일 밤세, 27일 장례
5. 김문수 성도(김영진 권사의 부친, 정철석 집사의 장남, 6교구 석촌1구역, 8교구) / 3월 26일 밤세, 27일 장례

6. 임영민 씨(임대혁 집사의 부친, 장은비 집사의 시부, 5교구 포이구역) / 3월 28일 밤세, 30일 장례
7. 조인애 집사(김용삼 성도의 부인, 조복규 집사·임영숙 권사의 딸, 9교구 하계2구역, 12교구) / 3월 28일 밤세, 30일 장례

◆파택자 교육개강예배

일시: 4월 1일(오늘), 찬양예배 후
대상: 파택정초 부부, 파택신수집사, 파택전사 전원

장소: 배다나홀

◆전사회 찬양예배

일시: 1월 21일(주일)~4월 15일(주일), 매주일 오후 3시~4시

장소: 갈릴리움

◆안수집사부부 찬양예배

일시: 3월 18일(주일)~4월 29일(주일), 매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제2교육관 407호

2007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4월 8일 (다음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 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장 훈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론 (이성진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정종선 목사)	교육관 304호		
4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김준호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최성규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관 (안진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4월 22일 (주일)		성인 학습·세례식(찬양예배,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바람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바람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답당

교단주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2 (월)	3 (화)	4 (수)	5 (목)	6 (금)	7 (토)	8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박상재	정진호/윤상철	여국근/박찬식	김익환/유재훈	안창덕/김종성	최성규/홍순애	임현덕/김연식

예배담당 안내 (4/4~4/8)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4/4	수요 I	믿는 자의 친구 (요 15:13-15) 김성관 목사	임현덕	홍예경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호산나 찬양대)
4/4	수요 II	하나님의 가족 (창 21:9-22) 박진기 목사	박정원	권연숙	성부의 어린 양이 (실로암 찬양대)
4/6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안진원	연합찬양대
4/8	주일 I	죽음에서 부활까지 (눅 24:1-12) 양태선 목사	강병만	황의만	(예배 전 찬양)
4/8	주일 II	죽음에서 부활까지 (눅 24:1-12) 여국근 목사	안창덕	임복식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외 / 소프라노 김희숙(명사부부 찬양대 솔로리스트)
4/8	주일 III	죽음에서 부활까지 (눅 24:1-12) 김성관 목사	김영진	이달용	무덤에 머물러 외 / 금관중주(발명부 외 오케스트라)
4/8	주일 IV	죽음에서 부활까지 (눅 24:1-12) 최성규 목사	정종선	송두섭	무덤에 머물러 외 / 금관중주(발명부 외 오케스트라)
4/8	주일 V	죽음에서 부활까지 (눅 24:1-12) 김성관 목사	양종철	강철형	예수 부활했으니 외 / 소프라노 김지희(명사부부 찬양대 솔로리스트)
4/8	주일양양	부 활 (막 16:1-11) 장 훈 목사	최종철	이종서	가브리엘·아벨 연합찬양대, 오케스트라

4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고난주간(4.1~4.7)을 통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경요일 찬양집회에 나눔을 더욱 은혜를 주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③ 단기전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회 교회주일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은총의 자녀가 되어서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통신·복지)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하절기 저녁예배 시간변경 안내

(수요2부 예배, 금요찬양집회)

아번 주(4월), 수요2부 예배부터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가도원 금요양육 집회는 오후 11:00부터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 드리는 예배)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회 집회 안내 (☎ 031-765-5472)

집회	시간	차량
초교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예배	저녁 11:00	금요찬양집회 후 본당 앞출발

오전 11:00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00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Span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Silver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박인기	류병희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이재민	이재민	이재민	이재민	이재민
김진학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진원	정종선	양재호	이성진
최성규	이재원	이재원	김준호	유근식
홍순애	이재원	이재원	김준호	유근식
홍순애	이재원	이재원	김준호	유근식
홍순애	이재원	이재원	김준호	유근식
홍순애	이재원	이재원	김준호	유근식
홍순애	이재원	이재원	김준호	유근식

■ 어전집사

유근식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진학	안창덕	김정원	강덕원	최종철
전호진	김정자	김정희	이복순	류진희
한성일	임태우	김정희	이복순	류진희
강종숙	전영희	이복순	류진희	류진희
강종숙	전영희	이복순	류진희	류진희
강종숙	전영희	이복순	류진희	류진희
강종숙	전영희	이복순	류진희	류진희
강종숙	전영희	이복순	류진희	류진희
강종숙	전영희	이복순	류진희	류진희

- 찬양감독 김진기
- 찬양감독지 서문성 김현식
- 찬양감독지 김현식
- 찬양감독지 김현식
- 찬양감독지 김현식
- 찬양감독지 김현식
- 찬양감독지 김현식
- 찬양감독지 김현식
- 찬양감독지 김현식
- 찬양감독지 김현식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소 담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 담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호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배다나홀
출판인턴집회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정신건강인턴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교부	오전 11:00	아 변 홀